

선배를 뛰어넘는 후배들이 되기를

연세대 사회학과 교수
류석춘(65회) 교우



기억되고 재현되지 않는 전통은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. 오늘을 살면서 실천하고 또한 미래를 설계하는 준거로 활용될 때에만 전통은 살아납니다. 100년의 전통이 박제되지 않

고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후배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중앙이 대한민국의 타오르는 횃불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. 후배님들, 선배님들을 뛰어넘는 전통을 부디 만들어 주십시오.